


 코스피	 코스닥
2548.39 (+3.46)	745.18 (-4.41)
 금리	 환율
2.651 (+0.018)	1453.35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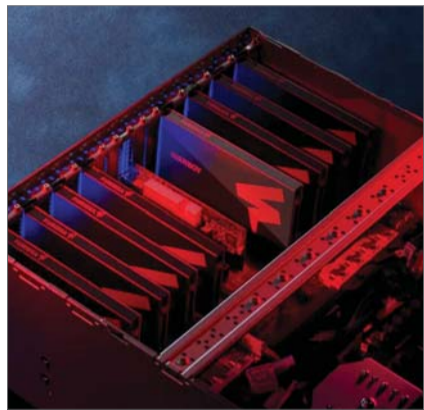
금값 천정부지 펀드 수익도 경풍 02



메타, '퓨리오사AI' 인수 추진

韓 반도체기술, 빅테크에 통했다

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쟁점음
엔비디아 과의존 탈피 행보
메타, AI 인프라 투자 94조 예고
인수 소식에 창투사 주가 급등
DSC·TS인베스트먼트 상한가



퓨리오사AI는 AI 반도체 팹리스(설계회사)로 지난해 첫번째 AI 반도체 '워보이(Warboy)' 양산에 성공했다. 메타는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퓨리오사AI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사진은 퓨리오사AI의 1세대 반도체 워보이의 모습. /퓨리오사AI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미국 메타(META)가 한국 인공지능(AI) 칩 설계 벤처기업 퓨리오사AI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는 퓨리오사AI 인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달 중 인수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창업투자회사와 국내 반도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퓨리오사에 투자를 한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 등의 창투사 주식은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3·12면) 퓨리오사AI는 서버향(向)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AMD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개발 엔지니어 이력이 있는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2021년 첫 번째 AI 반도체 '워보이(Warboy)'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차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RGNID)'를 공개했다. 퓨리오사AI가 지금까지 조달한 자금은 약 1억1500만달러(약 1672억원)에 달한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이에 메타를 포함해 MS, 알파벳(구글), 오픈AI 등이 잇따라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 소식은 AI 기술 박빙 이후 엔비디아 과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상향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초고속 데이터 연산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해당 연산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과 칩은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거의 유일하다.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엔비디아의 최상위 반도체 상품 B100은 1개당 5000만원에 달하지만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이에 메타를 포함해 MS, 알파벳(구글), 오픈AI 등이 잇따라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메타는 지난해 4월 자체 AI 반도체 MTIA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내놓았지만 실질적 활용에 실패했다.



수도권이 초미세먼지 나뭇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내가 초미세먼지가 섞인 안개로 덮여 있다. /뉴시스

반도체·자동차 등 투자 늘린다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계획

이차전지·철강 분야는 위축 예상
안덕근, 투자 계획·촉진방안 논의



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야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는 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 분야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 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국내투자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와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110조원) 대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한 결과다.

올해도 반도체와 자동차 투자가 전체 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자동차는 미

10대 제조업은 이들 4개 분야를 포함해 석유화학·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으로 2023년 기준 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들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과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투자계획과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들은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동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울시 '잠·삼·대·청' 토허제 즉시 해제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14곳은 유지
아파트 291곳·신통기획 6곳 해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아파트 14곳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키로 했다. 시는 이날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힘들다.

현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주

요 개발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65.25㎢로 서울 면적의 약 10% 수준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이번엔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도에 따른 매수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

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i@

메트로 한줄뉴스



▲민주 "‘명태균 특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김선민 "민주공화정 믿는 이들 연대해야 극우 파시즘 제거" /사진 뉴시스

▲유승민 "尹에 데었는데 또 '검사' 한동훈 찍어 주겠나"
▲신원식, 日국가안보국장과 첫 화상회의… "한일 공조 지속 재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 조문
▲오세훈 "검찰, 명태균 관련 빠른 수사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해달라"

펀드수익 고공행진 ‘金테크 열풍’... “꾸준히 담을만 해”

금값 고공행진에 현물투자 부담
상장지수 펀드 상품에 ‘몽칫돈’
뉴욕 선물가격 온스당 2932.60弗

이달 현물ETF 수익률 20% 뛰기도
금 거래소 일일 거래액 1000억 넘어

직장인 이용현(가명·46) 씨는 연초 성과
급으로 생긴 여유돈 2000만 원으로 금 투
자를 계획 중이다. 일반 주식에 돈을 넣자
니 불안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당분간 글
로벌 시장도 뒤숭숭할 것으로 판단해서
다. 이씨는 “최근 금값이 너무 올라 현물투
자는 부담스럽다. 대신 금 상장지수펀드
(ETF)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
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값이 트로이온스(약
31.1g)당 3000달러에 달하면서 상장지
수펀드(ETF) 등 금 가격에 연동한 투자
상품에 몽칫돈이 몰리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업거래소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스시스

(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
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06%
(1.80달러) 내린 온스당 2932.60달러
(약 425만원)에 마감했다. 전날에는 온
스당 2934.4달러(약 426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약
421만원)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투자자들의 금 투자 열기에 국내 유
일의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A
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11일 기준 전년 동기 6.3배 수준인 9619
억원으로 불어났다. 수익률은 이달 들어

19.13% 뛰었다. 남용수 한투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
속되는 가운데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며 “포트폴리오 내 자산배
분 관점에서 꾸준히 담어갈 만한 상품”
이라고 설명했다.

한해지 상품인 ‘KODEX 골드선물
(H)’과 ‘TIGER 골드선물(H)’ ETF도
올해 들어 각각 9.93%, 9.49% 상승했
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6.2%)을
웃돈다.

KRX 금 거래소 일일 거래대금도 6일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지난해
말 금값이 ‘숨고르기’를 거쳤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는 유
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
협회(WG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톤

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금값이 조만간 3000달러를 넘어
설 것이라는 예상도 줄을 잇는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
통령의 불규칙한 관세 결정에 따른 불
확실성이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 심리
를 자극했다”며 “지난 2월 3일과 4일 양
일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ET
F는 21개(미국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형 제외)뿐인데, 이 중 11개가 금(8개)·
은(3개) 테마 ETF였다. 안전자산 대표
격인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라고 분석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12월까지 약 50bp까지 축소된 기준금
리 인하 폭 전망은 귀금속 섹터 성과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된다”며 “실질금
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
밖 경기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
격 동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통상임금 확대’ 유통업계, 4분기 실적 타격

롯데쇼핑 작년 영업이익 6.9% ↓ 4731억
일회성 비용 등 제외하면 5.7% 증가
이마트 “희망퇴직 보상금 등 제외면
영업익 전년보다 증가 2603억 달성”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여파로 유통업계의 지난해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4분기 추가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
향이 컸다.

◆대형마트에 더 큰 타격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비용 부담이 4분기 실적
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주요기업들
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이 47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다만,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부담금 등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
면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3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역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1억원을 기록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실제 영업이익은 2603억원을 달성했으
나, 통상임금 판결 부담금(1529억 원)과
희망퇴직 보상금(603억 원) 등 총 2132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줄어들었
다. 그럼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
비 940억원 늘며 흑자로 돌아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상임금 부담금
과 희망퇴직 보상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2603억원”을 달성했다
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
업이익 28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
화점 리뉴얼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과 합
계,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증가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비용 부담은
대형마트 업계에서 더 크게 작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
데백화점의 통상임금 부담금은 192억
원인 반면, 마트·슈퍼 등 국내 그로서리
(식료품) 사업 부문의 부담금은 222억
원으로 더 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업태 특
성상 직원 수가 많고, 긴 영업시간과 휴
일 영업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과 휴일

수당 부담이 크다”며 “이번 통상임금 판
결로 인해 이러한 부담이 퇴직충당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
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며 기존 ‘고
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려면 ‘정기성·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
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
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고, 퇴직금 산정 기준 역
시 높아졌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퇴
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부담
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
업들은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
리 회계상 부채로 반영해야 했고, 그 영
향이 4분기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되
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wotjs4187@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소규모 면허 허용”

최상목 대행, 양조장 창업 촉진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증류주 소주를 비롯해 코냐,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득
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 약
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한해 소규모
양조 면허가 발급돼 왔다. 정부는 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
는 계획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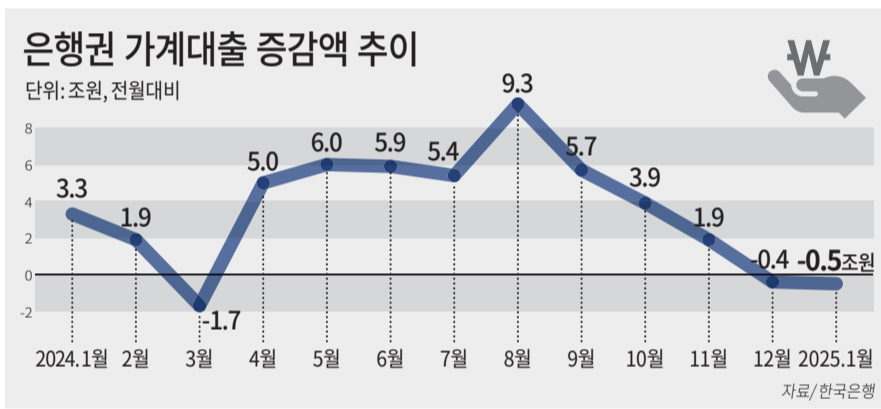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
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
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하고,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
자로 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
표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
주가 와인·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
극 뒷받침하겠다”며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겠
다”고 말했다.

특히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
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조면허
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탁주·약
주·청주,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제조면허를 소주, 위
스키, 브랜디(코냐·아르나막) 등 증류
주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동산 침체... 10개월 만에 가계대출 ‘뚝’

이달 은행·비은행권서 9000억 ↓
“연초·설 상여금으로 대출 갚아”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세
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줄
어든 영향이다. 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까지 더해지면서 신용대출을 포
함한 기타 대출도 2조원가량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12일 발표
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은행
권과 비은행권(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은 총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
세로 전환했다.

◆신용카드 포함 기타 대출 2.1조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
출 잔액은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000억원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90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
다. 증가폭은 전달(8000억원)보다 늘어
난 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점이던
지난해 8월 8조2000억원의 5분의 1 수
준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관련 대
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전
반적으로 하락 전환했고, 거래량도 줄
고 있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둔화 흐
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만8000호까지
거래됐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1월 3
만1000호, 12월 2만7000호로 줄었다.

분양 물량도 같은 기간 2만5000호에서
2만호로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쏠림 줄었다

특히 1월에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쏠리던 가
계대출도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감
소했다. 한 달 전 2조4000억원 증가한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중 상호금융권은 신협(+1000억
원)과 수협(+1000억원)이 증가했지만
농협(-1000억원)과 새마을금고(-3000
억원)가 감소하며 2000억원 줄었다. 저
축은행은 한 달 전과 비교해 2000억원
늘었고, 보험사는 5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설 명절 자금 수요에 7.8조 증가

지난달 기업대출은 계절적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은행 기업 대출 잔액은 1322조9000
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7조8000억
원 늘었다.

부실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 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은 280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42조3000억
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인이 한 달 새 2조1000억원 늘었지만 개
인사업자대출이 3000억 원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술혁명 이끄는 벤처캐피털... 창투사 지분투자 관심집중

퓨리오사 관련 창투사 주가 급등
초기 투자로 높은 수익 창출 기대
증권가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한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 인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가 주목받고 있다. AI 등 '기술'로 무장한 K스타트업이 성장세를 잇고 있어서다. 창투사들은 이들의 젖줄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한파는 수그러들었지만, 금리가 안정되는 등 거시 환경이 나아지면서 몇몇 투자사들은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투사 주가도 치솟고 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들이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AI 분야 등 K-스타트업 투자 주목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는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퓨리오사AI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나우IB(20.38%)와SV인베스트먼트(13.46%), 컴퍼니케이(5.25%), 캡스톤파트너스(3.95%), SBI인베스트먼트(4.13%) 등도 강세를 보였다. 창투사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글로벌 투자시장 활성화' 이미지

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는 비상장사 투자 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AI 등 빅테크 관련 기업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려는 이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 그치지 않고 창투사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다.

증권가는 창투사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경계한다. 시장가치와 시가총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분투자를 하는 창투사 특성상 상장으로 인한 수익도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창업투자

사 수익 및 투자 구조를 잘 모르고 무작정 주식을 산다면 과도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운용 수익과 투자사의 포트폴리오를 본 뒤 창투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바이오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자 이 분야 기업들이 코스닥을 한동안 떠받친 적이 있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트렌드와 주식시장 변화를 눈여겨보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 글로벌 창투사, 벤처캐피털 산업 뒷받침... 韓 투자시장 '우물 안 개구리'

오늘날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이다. 과연 무엇이 미국을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과 차이나게 했을까. 시작하는 있지만, 창투사들이 이끄는 벤처캐피털 산업이 한 몫을 한다. 이들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창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혁신생태계를 만들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 전 세계의 기술 혁명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7',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엔비디아, 메타(구 페이스북), 그리

고 테슬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 국내 투자시장도 해빙기를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도의 10조 9133억원에 비해 1조 324억원, 9.5% 증가했다.

투자시장의 덩치는 커졌지만,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서 창투사들이 대접 받으려면 미국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흥린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고, 투자사들도 성장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스타트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창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초기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타보다는 흥린'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성공했을 경우 기업이 가져올 이익이 막대하다면 그만큼 모험을 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투자 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창투사들에 모든 리스크를 지라고만 할 순 없다. 업계 한 임원은 "정부나 정치권이 모험적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 기업에 세제 및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시스템을 만든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퓨리오사AI, 반도체 NPU 개발... '레니게이드' 등 선배

(신경망처리장치)

삼성·AMD 출신 백준호 대표 설립
일각선 이달안에 인수논의 마무리 전망

글로벌 소셜 미디어(SNS) 기업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AI) 칩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인수를 논의 중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퓨리오사AI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퓨리오사AI는 삼성전자와 AMD 출신 엔지니어인 백준호 대표(사진)가 2017년 설립한 랩리스 스타트업으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퓨리오사는 2021년 AI 반도체 '워보이'를 출시한 데 이어, 2022년에 더 진보된 '레니게이드' 칩을 시장에 내놓았다. '레니게이드'는 엔비디아의 최신 G



PU 'H100'에 견줄만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에너지 효율과 비용에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는 그들의 자체 AI 칩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I 칩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가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메타는 엔비

디아 칩의 고가 구매를 지속하기보다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과 기술 독립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메타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협력,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약 93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포브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와 퓨리오사AI가 인수 논의 중이라면서 인수 논의가 이르면 이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의 메타 인수가 완료되면, 퓨리오사AI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유니콘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한다. 현재 퓨리오사AI는 총 1억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달 초에는 크립벤처스로부터 2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은행, DSC인베스트먼트, 네이버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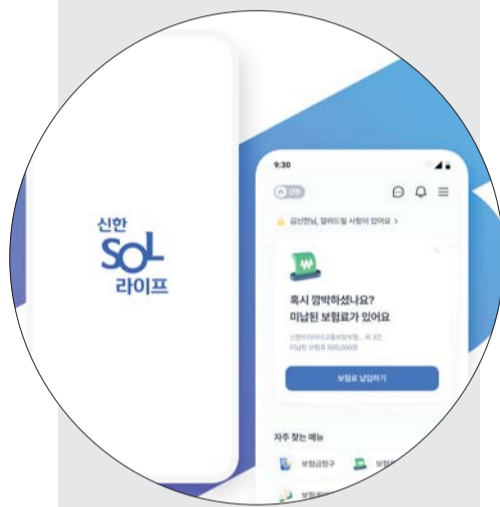
/원관희 기자 wkh@

‘TOP2 비전 현실로’... 영업 경쟁력·신시장 개척 본격화

S 신한라이프

⑮ 이 영 중 사장

신한라이프는 고객편의성 혁신과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톱(TOP)2’ 전략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이에 걸맞는 가치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포석이다.



(첫번째) ‘신한SOL라이프’ 앱 고도화 오픈. (두번째) ‘착한소비 캠페인’ 포스터. (세번째) Give N Life 캠페인 이미지. (네번째)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이영중 사장 연임 성공, TOP2 가속화
신한라이프는 올해 경영전략 슬로건을 ‘TOP2를 향한 질주’로 정했다. TOP2는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이 지난 2023년 취임할 당시 내건 목표다. 이 사장이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하면서 신한라이프의 TOP2를 향한 질주는 탄력을 받고 있다.

목표를 향한 질주를 이어가기 위해 고객 편의성과 영업 경쟁력 혁신에 나선다.

이영중 사장은 “고객의 눈높이와 사회적, 시대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TOP2 수준에 걸맞는 혁신적인 고객 편의성을 실천하며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고를 실행하고 있다. 고객지원그룹은 고객 만족과 편의성 혁신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고객혁신 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고객경험본부 산하에는 CX(Customer Experience)혁신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고객경험혁신 업무를 담당해 고객 관점의 전자적 오퍼레이션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

또한 지난 2년간 이어온 영업경쟁력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각 영업채널 차별화 ▲상품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 ▲영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계획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각 영업채널 특화·혁신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영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영업 프로세스와 서비스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신계약 가치를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시장 개척 속도

신한라이프는 본원적인 영업력을 기반으로 외형 성장뿐 아니라 미래 준비 관점에서 글로벌과 시니어 부문 신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영업을 시작한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안정적인 영업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엔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면 영업 조직 ‘FC(Financial Consultant·재정 컨설턴트)채널’을 선보였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의 영업수익은 2022년 127억4700만원에서 2023년



“고객 편의성 혁신, CX혁신팀 신설
영업 채널 차별화·상품 경쟁력 강화
신계약 가치 증대, 안정적 운영 도모

베트남 법인 성장 등 FC채널 확대
시니어 시장 공략, 요양시설 확장
해외투자 확대... 신사업 성장 추진

215억9000만원으로 약 70%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47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월 신한라이프케어의 공식 출범을 통해 시니어 사업의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이후 요양 시설 및 실버타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작년 11월엔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최근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케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50억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에 요양시설을 개소한다. 2027년에는 서울시 은평구에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시니어 주거복합시설을 오픈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개소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사업 확대에 따라 신한라이프 케어는 지난해 3분기 10억4700만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3억18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은 “글로벌 법인은 베트남 환경에 맞는 한국형 프로페셔널(Professional) FC채널을 구축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시니어 사업은 하남미사 요양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함과 동시에 연합(Alliance)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업 기반을 지속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FC사업그룹 영업전략회의에서 이영중 사장(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팬메이드 응원가 챌린지

누구나 AI로 음악을 만드는 세상
K-AI가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듭니다

K-AI로 응원가 만들기
당신도 응모하세요!



KT 위즈 | KT 소닉붐 | 대한축구협회 공식 파트너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尹 탄핵심판, '2말 3초' 가능성... 탄핵인용 시 '벚꽃대선'

현재, 한덕수·이경민 증인채택 안 해尹 새로 신청한 3명도 가능성 낮아 늦어도 내주 변론 최종 마무리 될 듯 변론기일 종결 여부 입장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결정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1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직무대리는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

계의 전망이다. 현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현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인신문은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되지

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가

능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향후 변론기일도 미정이다.

현재 속도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 기일이 종료된 뒤 2주 내에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새 정부를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졌다. 파면 이후 움직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세 걸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

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모습을 드러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청사진을 발표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뭣 “지자체에 대통령 권한 넘겨 재정권 행사하게 하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헌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실현 내치 관한 것 초광역지자체에 이양 벤치마킹 케이스로 싱가포르 등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 평균 10%씩 성장하는 모멘텀(계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번 토론회는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오 시장이 직접 개헌론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많은 관심을 모

았다. 국민의힘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와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 당 중진도 다수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론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내고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권한을 더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게 하고 재정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폐를 막고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해 5개의 광역지자체로 나누고 재정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 특색 있

는 지방만의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정책을 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해도 지방소멸의 대세를 바꿀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과 고민을 바탕에 두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싱가포르가 인구가 600만이고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 구매력까지 하면 12만~13만 달러다. 지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충남·충북을 합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권한을 남기고 내치에 관한 것은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

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방발전 모델엔 인적 자원과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인데, 과감하게 5대5 혹은 그 이상으로 재정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세금을 정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쓰는 권한까지 지방에 주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배분하고 투입하는 권한까지 지자체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라며 "이들은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 단위 인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이 현재 3만5000불 정도로 정체돼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 같은 것을 지역별로 채택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경쟁 상태에 돌입하면 다시 한번 1980년대에 돌입했던 연 10% 성장 모멘텀을 이 시스템 변화로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與 “尹 비상계엄, 野 때문” vs 野 “‘명태균 게이트’ 신속 수사”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與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野 “尹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야당은 수사 당국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가 각종 의혹으로 얽힌 '명태균 게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이 발생한 12월 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사건이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 대통령실에 수사 보고서가 보고 됐다"

라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에 보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별 내용이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면 여러 소환

조사 등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발언대에 나오자마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라고 물었다. 예상했다는 듯 폭소를 터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李 제안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헌법학계 "도입하려면 개헌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익·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

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길어지는 눈치싸움... 매수문의 실종, 급매 나와도 거래절벽

부동산 현장 르포

서울 외곽 부동산

토허제 해제 기대감 강남권 상승
도봉·노원·금천 등 외곽은 하락세
구축 대비 신축만 가격 버텨내
반등 위해 추가적 정책지원 필요

“매수 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급매를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11일 방문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분위기였다. 중개업자 A씨는 “매매·전세 할 것 없이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얼어 붙은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해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남권과 일부 핵심 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절벽’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지만 도봉·노원·금천구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국평(전용면적 84㎡) 기준 5억5000만~6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고 급매는 5억2000만원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없는 상태.

공인중개사 A씨는 “급매로 나온 물건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니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호가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전지원 기자

거래가 정체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집주인들은 아직 가격을 내리지 않지만 매수자들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곽 지역에서도 신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 '롯데캐슬시그니처'는 입주 2년 차 신축 단지로 구축 대비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현재 국평 기준 매매 호가는 11억20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전세 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공인중개사 B씨는 “신축 단지는 초기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한 사람들이 갱신을 포함해 4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량 자체가 적다”며 “급매가 많지 않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구축 단지는 매도 물량이 쌓이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씨는 “노원구의 경우 25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많아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부진의 원인”이라며 “최근 주택 시장에서 방 3개 이상 있는 중형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방 2개뿐인 25평 아파트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에게 매력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역시 거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26년 하반기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C씨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더라도 지극히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거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권이 재건축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외곽지역은 투자 수요가 거의 없는 실수요 중심 시장이어서 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회복이 쉽지 않다”며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금리 인하 또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본격화... 이자부담 줄어드나

신한·우리은행 이어 농협도 조정
당국, 대출 관리 속 금리 인하 유도
업계 “시장 보며 추가 인하 검토”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가산금리를 높였던 은행권이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관리 여력이 생겼고,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비대면 주담대 주기형 상품 금리를 최고 0.6%포인트(p) 인하하며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0.2%p, 비대면 신규 전세대출은 최고 0.5%



p, 비대면 대한 전세대출은 최고 0.3%p 각각 인하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가산금리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

년물 한정) 가운데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0.1%p,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0.05%p 각각 낮췄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각 0.2%p, 0.01~0.29%p, 0.23%p 인하했고, 기업은행은 주담대,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각 0.3%p, 0.2%p 내렸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가산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조절해 가계대출 금리

를 높여 왔고, 인상 횟수는 20차례가 넘는다.

금융당국도 금리에 대해 유연해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상성장률(3.5%) 이내 증가 폭 관리 ▲상환 능력이 맞는 대출 관행 정착 ▲은행의 자율적 관리 기조를 주문하면서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작년에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 속도·폭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가계·기업이 종전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는 1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 가계대출을 비롯한 가산금리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출 관리를 위해 올렸던 가산금리를 시장 추이에 맞게 조금씩 내리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가산금리를 낮출 계획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도 같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에 대폭 낮추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로또 청약’ 당첨되려면... 4인 가족 만점통장 있어야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가점 최저 69
무주택기간·청약기간 최대치 요구

올해 첫 ‘로또 청약’으로 나선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자의 청약가점이 최저 6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됐지만 4인 이상 가구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치를 모두 채워야 가능했던 얘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페를라의 당첨자 최저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이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서울시 서초구 방

배동 일대에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최고 22층, 총 16개 동으로 1097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482세대였다.

모든 평형에서 최저가점이 69점이었고, 최고 가점은 84㎡D 타입에서 나왔다. 당첨 가점 평균으로 보면 59㎡B 타입이 71.17로 가장 높았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경우 모든 평형에서 4인 가족 만점 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최고점인 69점은 5인 가족에 다른 점수를 모두 채운 만점자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가점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6800만원 선이다.

앞서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와 ‘아크 로리츠카운티’의 분양가를 모두 넘어서며 당초 청약자들의 기대보다는 높게 결정됐지만 여전히 시세차익만 최소 5억원 이상이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9650만원, 84㎡가 24억5070만원이다. 106㎡와 120㎡는 각각 29억9780만원, 31억8400만원이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전용 54㎡와 84㎡가 지난해 말 각각 20억2000만원, 29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고 있는 ‘디에이치 방배’의 입주권은 전용 59㎡가 18억8155만원, 101㎡가 33억

9386만원에 거래됐다.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로또 청약’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시세차익이 10억원 안팎으로 컸던 곳은 한 단지에서 만점 청약이 여러 개 등장했다.

지난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등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텔루이’, 송파구 잠실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의 가점 최저점이 69점이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던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벨’은 최저점이 74점에 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최태원 “무역전쟁 등 韓 폭풍우… 경제 최우선 의사결정 필요”

(대한상의 회장)

상의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

정세균 前 국회의장 등 참석
민간주도 신성장 전략 등 제언
“정치 불안요인 속히 해소돼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경쟁, 정치적 불확실성 등 4개의 폭풍이 몰려온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 결정들을 모아 격변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 열린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전직 경제관료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무역질서와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기업이 실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협력해서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원로들은 현 경제위기상황의 해법으로 민간주도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정치적 불안요인도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관정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제어하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주도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환율과 금리 등 거시금융지표를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서민계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수혜를 받은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있고 정치 혼란까지 덮쳐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며 “정치적 안정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LG엔솔, ‘차세대 전지’ 전고체 충전 신기술 개발

이온 유도로 충전속도 10배 향상
무음극 전고체전지 개발 탄력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 및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전지 연구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시카고대학교 셸리 명 교수가 연구한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texture)이 배터리 충전 속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에너지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줄(Joule)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동안 셸리

명 교수가 이끄는 시카고대학교와 UC 샌디에고(UCSD)의 FRL(Frontier Research Lab) 연구팀과 함께 전고체전지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해 왔다.

셸리 명 교수는 전고체전지에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함으로써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을 제어하여 균일한 전착(전기장에 의해 전해질 내 이온이 전극의 표면에 들어붙는 일)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를 약 10배 이상 향상시키고, 배터리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 성과

를 통해 무음극 전고체전지 개발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음극 전고체전지는 기존 음극에서 음극재를 제거하고, 충전 시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 이온을 음극에서 리튬 금속으로 환원하여 활용하는 전고체전지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축소하면서도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리튬 금속이 균일하게 전착되지 않으면 수명과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실마리를 찾은 것이라고 회사 측

은 설명했다.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이 리튬 금속 전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하여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을 제어함으로써 전고체전지의 충전 속도를 약 10배 정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제조 전문성과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고객가치를 높이고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더 기아 타스만 외관.

기아, ‘타스만’ 계약 돌입

기아가 13일 브랜드 최초 정통 픽업 트럭 ‘타스만’을 공개하고 계약에 돌입한다.

타스만의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5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최고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0kg·m의 동력 성능과 8.6km/L의 복합 연비를 제공한다. 특히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towing) 성능도 갖췄다.

타스만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 특화 모델 X-Pro 5240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

한번에 1000km 주행 ‘거뜰’… 고유가에도 격이 다른 클래스



벤츠 ‘E220d’

디젤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
고속주행시에도 안락한 승차감

벤츠의 11세대 E220d 4MATIC 익스클루시브(이하 E220d)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를 떠올리게 한다.

꼬마자동차 붐은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아 경주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둔다. E220d는 꽃향기는 아니지만 기름 냄새만 맡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디젤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오해로 한동안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기술 발전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거듭난 덕분이다.

최근 시승한 벤츠 E220d는 디젤 모



벤츠 더 뉴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텔이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환경 문제와 소음 등을 최소화하고 뛰어난 경제성을 확보했다.

E220d의 가장 큰 매력은 주행거리다. E220d는 4기통 디젤 엔진(OM654M)을 장착해 최대 출력 197ps, 최대 토크 44.9kgf·m를 제공한다.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를 통해 내연기관 엔진에 추가적인 전기 공급으

로 가속 시 최대 17kW의 힘을 추가 제공하며 신속하고 부드러운 엔진 시동을 돕는다.

주행거리는 말 그대로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남도 목포를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700km를 주행하고도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했다. 고급세단의 연비가 안 좋다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실제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

행한 결과 연비는 19.8km/L로 공인 연비(15.4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실내 공간성도 부족함이 없었다. 휠베이스는 이전 세대보다 20mm 길어졌고, 운전석 헤드룸은 5mm, 뒷좌석 레그룸은 최대 17mm 증가하면서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트렁크 공간은 최대 540L까지 적재 가능하다.

고속 주행 시 차체 역시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급하게 방지턱을 통과할 때도 충격을 최소화해 탑승자에게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했다. 다만 벤츠 특유의 물컹한 승차감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한 단계 진화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편의성을 확대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벤츠 E220d는 평소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을 많은 운전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다. E220d의 차량 가격은 81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OLED TV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12일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55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신제품을 국내 출시한다.

신제품은 2025년 삼성 TV의 AI 신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AI 스마트 홈’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집안 기기 상태, 날씨·실내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집안 환경에 맞는 행동을 제안한다.

2025년형 삼성 OLED TV의 출고가는 219만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I 구독 클럽’의 요금제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트럼프 관세 폭탄’… 中企, 대미 수출 1.2조 증발 위기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미국 수출액 최대 11.3% 감소 전망
전기전자·기계·車·화학 등 직격탄
“생산 감소·기지 이전 불가피”
“35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

‘트럼프 관세’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액이 최대 11.3%, 금액으로는 1조2000억원(8억5280만 달러)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앞서 산업연구원이 발제한 트럼프 행정부 추진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나왔다.

수출액 감소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시 추산한 결과다.

산업연구원 김정현 연구원은 “보편적 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변화 추정 결과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분야 등의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의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서울지점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급효과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난다”면서 “이는 대기업 위주 최종재 및 준최종재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파급효과가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선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

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방청에 있는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매주 현장 목소리를 파악·검토하고 분류한 결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올해 예정한 3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수출 애로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 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정책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아이텔 이재식 대표는 “우리는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가 (원자재 수출에 대해) 35%의 관세를 앞서 부과했다. 직격탄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우리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등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관세에 대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금융 관련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파이테크 신용철 대표는 “800달러 이내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관건”이라며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루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는 “정책 자금을 통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韓-오만 中企 협력 방안 모색

김기문 회장, 오만 상의 회장 등 간담회
오만, ‘백두포럼’ 무스카트 개최 요청
“협력 확대하면 양국 상호발전 가능”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만과 양국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포럼인 ‘백두포럼’을 올해엔 오만에서 열 가능성도 크다.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오만을 방문해 파이잘 압둘라 알 라와스(Faisal Abdullah Al Rawas) 오만 상공회의소 회장 및 카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Qais bin Mohammed Al Yousef) 오만 상무부 장관과 잇따라 간담 자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파이잘 알 라와스 오만 상의회장은 김 회장에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의 중소기업이 오만에 진출하는 첫걸음으로 ‘제16회 백두포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카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을 다른 곳이 아닌 오만 무스카트에서 꼭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오만 대표단이 올해 4월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들러 양 단체에서 서로가 원하는 업종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튿날 이어진 간담회에서 카이스 알

유세프 오만 상무부 장관은 “오만 상의의 백두포럼 무스카트 개최 제안을 알고 있으며, 오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설 명회와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오만과 한국 정부 간의 가교 역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만과 미국은 FTA가 체결돼 미국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이 무스카트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에서 값싼 노동력 공급도 가능해 한국 중소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만이라는 나라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낯선 부분도 있지만 양 기관에서 백두포럼의 오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는 만큼 단순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 협력을 확대하면 양국 기업이 상호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리마트, AI 활용 ‘맞춤형 쇼핑’ 돕는다

‘리마트몰’ 회원 개인화 페이지 제공

현대리마트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리마트는 AI 기술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최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현대리마트 공식 온라인몰인 ‘리마트몰’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콘텐츠·이벤트 등을 큐레이션해 개인화된 페이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리마트몰 상단 ‘맞춤형 쇼핑’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이 리마트몰에서 ‘관심 공간’, ‘선호 인테리어 스타일’, ‘선호 가구 색상’, ‘가족 구성’, ‘공간 크기’ 등 다섯 가지 문항에 답변을 하면 AI가 해당 답변과 고객의 리마트몰에서의 구매 및 검색 이력 같은 활동 기록을 분석한 후 사용자 취향에 맞도록 예상되는 제품이나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김승호 기자

韓 100대 기업, 공급망 ESG 공시비율 54%

동반위, 매출 상위사 관련 공시 분석

국내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한 기업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높지만 절반 가까운 기업은 여전히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공시 수준’을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는 동반위와 대신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한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공급망 ESG 13개 프로세스 공시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적인 ESG 관리 활동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지만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행동규범 제정(84%) ▲파트너사 체크리스트 개발(82%) ▲파트너사와 소통·지원(68%) 등이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기본적인 ESG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ESG 리스크 관리(20%)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30%) ▲파트너사 ESG 관리 성과 종합분석(25%) 등은 공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망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급망 ESG 관리 수준을 평가한 25개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역량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조사됐다.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 식별시스템(11%), 식별 프로세스 가이드 제정(35%),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절차 보유(30%), 고위험군 파트너사 시정조치계획(CAP) 관리시스템(17%) 등 전반적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센터장은 “100대 기업의 공시 수준은 우리나라 ESG 경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기업들은 공시 비율이 비교적 낮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그 린위험, 분쟁광물, 인권 보호, 안전 문제 등 공급망 내 다양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ESG 경영이 기업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동반위는 국내외 ESG 법·제도에 맞춰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엔비디아 의존 낮춘다... 빅테크 기업, AI 반도체 개발 고삐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IDC 건립·ASIC 개발 박차
오픈AI, TSMC서 생산 예정
하드웨어 성장 중심 국면 지속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90%는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B100 등은 1개당 5000만원 이상에 달하지만 대안책이 없어 초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우려스럽도록 높은 엔비디아 의존을 낮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사 AI에 최적화된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며 설계, 개발, 생산 기업들과



반도체 칩셋의 모습.

/PIXABAY 무료 이미지

합종연횡 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4곳이 올해 지출한다고 밝힌 3200억달러(463조원)의 상당수가 IDC 건립과 주문형반도체(ASIC) 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타가 자체 AI 반도체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 AI 반도체 설계업체 퓨리오사AI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퓨리오사AI는 데이터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스타트업이다. 메타의 퓨리오사AI 인수 타진은 앞서 공개한 자체 AI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2023년 AI 반도체 v1을 공개한 후 지난해 4월 차세대 AI 반도체 MTIA를 공개했다. 메타는 대역폭 확장과 서버 컴퓨터용 랙 개발은 물론 엔비

디아의 강점인 쿠다(CUDA)와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직접 개발하면서 자체 맞춤형 IDC 건립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MTIA 공개 당시 메타는 “칩의 역할을 확장해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인 ‘라마’와 같은 생성형 AI를 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컴퓨팅, 대역폭, 메모리 용량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오는 2026년 TSMC에서 자체 맞춤형 AI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TSMC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자체 AI 반도체는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하며 엔비디아의 GPU와 마찬가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시스템용 어레이(Systolic Array)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용 어레이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셀을 일렬 배치하는 구조로, HBM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속도와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브로드컴이

설계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

TSMC를 통해 생산하는 자체 반도체 칩의 양산 및 대외 판매 여부와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 사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알파벳(구글)도 지난해 자체 AI 반도체인 ‘클라우드 텐서프로세서유닛(TPU v5p)’을 공개했다. TPU는 애플이 7월 공개한 논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 AFM 온디바이스와 AFM 서버모델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가 선방하지 못한 반면, TPU가 괄목할 성과를 내면서 엔비디아 한계설이 돌기도 했다.

IT업계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행보를 비추어 챗GPT 이후로 이어진 하드웨어(반도체) 성장 중심의 국면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LM 개발 경쟁이 일단락 되면서 소프트웨어(SW) 경쟁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지만 AI 기업들로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가 효자... SKT, 지난해 매출 18조 기록

순이익 ‘14조’... 전년비 25.6% 늘어
올해부터 ‘돈 버는 AI’, 체질개선 추진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 상승했다. 연결 순이익은 25.6% 늘었다.

SK텔레콤은 12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7조9406억원, 영업이익 1조823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4% 늘었다. 연결 순이익은 사외인 합병 관련 평가이익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25.6% 증가한 1조438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5% 떨어진 4조5115억원, 영업이익은 14.4% 하락한 2541억원으로 집계됐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 13.7% 증가한 4조4111억원, 3517억원을 기록했다. 유

료방송가입자 증가와 B2B 사업의 증가가 주효했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을 통해 ‘돈 버는 AI’를 추진한다. 또 본원적 경쟁력 강화(O/I)를 지속해 단기 수익성과 장기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DC)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AI 등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구축을 가속화 중이다.

AI DC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SK텔레콤은 글로벌 GPU 클라우드 기업 ‘탑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대표 기업인 ‘행권 솔루션스’와는 AI 투자 중 최대 규모인 2억 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통신과 AI를 두 축으로 하는 7대 사업부로 조직을 재

편한 바 있다. 이 중 AIX사업부, AIDC사업부, 에이닷사업부, GPAA(글로벌 퍼스널 AI 에이전트) 사업부는 AI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업부를 기준 지난해 SK텔레콤의 AI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특히 AIX 사업 매출은 AI클라우드 사업 확대 및 AICC(AI컨택트센터), AI 비전 등 핵심 AI B2B 상품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2%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AI DC 매출은 가산 DC 등 신규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13.1% 상승한 3974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SK텔레콤 AI 사업의 또다른 한 축인 PAA(퍼스널 AI 에이전트) 영역은 국내 향 ‘에이닷’과 글로벌 향 ‘에스터’ 두 트랙 전략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 CNS-NH농협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임직원 업무 효율성, 고객 편의성 ↑

인공지능 전환(AI) 전문기업 LG CNS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통해 금융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에 나선다.

LG CNS는 NH농협은행과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LG CNS는 이번 계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모델 ▲AI 기반 지능형 기업 문서 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키로 했다.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등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로 이용 고객의 편의성도 증진한다.

NH농협은행 임직원은 AI 에이전트나 내부 지식 자료 검색 기능으로 단시

간내 업무 보고서, 보도 자료, 마케팅 자료를 정확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LG CNS는 NH농협은행 생성형 AI 플랫폼의 검색 속도와 정확도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LG CNS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검색 증강 생성 솔루션(RAG)인 ‘키록(KeyLook)’을 적용해 한국어 검색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RAG는 생성형 AI가 사전에 익힌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을 받거나, 학습 자료가 거짓 또는 과거의 데이터 일 경우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AI에 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한 기술이다. AI가 오답이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김현정 기자 hik1@

카카오, 신규 캐릭터 ‘골골즈’ 상품 선봬

인형, 쿠션, 키링 등 총 21종

카카오의 카카오프렌즈가 13일부터 카카오프렌즈 판매채널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 ‘골골즈’의 첫 캐릭터 상품을 선보인다.

골골즈는 기분이 좋으면 ‘골골’거리는 친구들이라는 뜻으로, 카카오가 지난해 11월 카카오프렌즈와 니니즈를 잇는 새로운 캐릭터 라인업으로 선보인 캐릭터 상품 브랜드다. 골골즈는 ‘골골송 동아리’를 운영하는 김공이와 박밤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무료 이모티콘으로 첫선

을 보인 골골즈는 단 일주일 만에 약 8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번 골골즈 굿즈는 인형, 쿠션, 키링, 파우치, 마우스패드 등 총 21종이다. 판매처는 카카오프렌즈 오프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카카오프렌즈샵,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이다.

이번 굿즈 출시를 기념해 카카오프렌즈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 동아리방 콘셉트의 특별 공간도 마련했다. 김공이와 박밤이가 춘식이와 함께 학교에서 어울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인증샷을 남길 수 있으며, 신제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의 새로운 캐릭터 브랜드 골골즈의 모습.

/카카오

온라인 카카오프렌즈샵에서는 대학 생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준비했다. ‘특대학생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 프로모션은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NHN 클라우드-커리어넷, 협력체계 체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솔루션

NHN 클라우드는 종합 HR 전문 기업 커리어넷과 클라우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커리어넷은 일대일 맞춤 채용 플랫폼 ‘커리어’ 운영 기업이다. 채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채용 대행 사업,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사업 지원, 중계 플랫폼 사업 등 전략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커리어넷의 솔루션·플랫폼과 NHN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커리어넷은 채용대행 솔루션 ‘RAM S’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솔루션 ‘커리어 세이프티’ 등 커리어넷이 보유한 솔루션 인프라를 NHN 클라우드도



NHN 클라우드 허희도 클라우드사업본부장(왼쪽)과 커리어넷 이호준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NHN

이전해 고객사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하고, NHN클라우드는 커리어넷의 채용 솔루션의 발전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제공·인프라 구축,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NHN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안전보건 관리·중대 재해 예방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김서현 기자

증권사, 연기금투자상품 운용 참여 공공기관 기금도 투자위탁 허용

연기금투자상품 제도 개편 방안

작년 61개 기금, 54개 공공기관서
예탁 평균잔액 62조1000억원
경영평가 통해 위탁 활성화 방침

앞으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연기금투자상품의 중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상품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상품은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 평균 잔액은 62조 1000억원이며 예탁기관은 115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상품 위탁 확대 ▲운용체계 효율화 ▲운용 전략 다변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상품 위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투자상품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보유자금도 연기금투자상품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만 중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치면 중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 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중간운용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간운용사의 성과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과 평가 점수가 67점 이상이면 지위가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낮은 투자상품 보수율로 인해 성과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금 관리 주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금 평가 시 자산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대체 투자 상품에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대체 투자 상품의 경우 대체투자자문단 검토 절차를 생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투자상품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상품 운영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정답 없어 주주보호,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세미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정합성 문제 등 부작용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경영 현장에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우리

법원이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상법 제401조와 관련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 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정당일 수 없으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선 안되며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SCI 글로벌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 편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인도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 빠져
총 23개 종목 추가 107개 종목 제외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글로벌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차 인도법인이 새로 편입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글로벌 표준 지수에 현대차 인도법인을 추가하고 인도 기업

아다니 그린에너지를 제외했다. 전체적으로는 23개 종목을 추가하고 107개 종목을 제외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28일 시장 마감 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조정에서 글로벌 지수에 중국 종목은 8개가 추가되고 20개가 빠졌다.

MSCI는 지난해 11월 지수 조정에서는 인도 기업 5곳을 글로벌 지수에

추가해 신흥국 시장 지수의 인도 비중을 20% 가까이 높인 바 있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선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11개사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다.

MSCI 지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MSCI는 분기에 한 번 이뤄지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韓 지수서 LG화학 등 11개사 편출

MSCI지수에 신규 편입종목 없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 LG화학우,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1개사가 제외됐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 구성 종목을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출 종목은 ▲엔켐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엘앤에프 ▲LG화학우 ▲롯데케미칼 ▲넷마블 ▲포스코DX ▲삼성E&A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

새로 편입된 종목은 없어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92개에서 81개로 줄어 들었다. MSCI는 분기에 한번 이

뤄지는 정기 리뷰를 통해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한다. 지수 변경은 2월 28일이고, 실제 지수의 변경 유효 시작일은 3월 3일이다.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주요 글로벌 투자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편출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 유출의 영향은 거래 대금 대비 유출 금액이 큰 LG화학우(21.7배), 넷마블(14.3배), GS(13.5배)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우주경제’ 펀드명 ‘우주기술&방산’로 변경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글로벌우주경제 펀드’를 ‘한국투자글로벌우주기술&방산’으로 바꿨다고 12일 밝혔다.

‘우주기술’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내에서도 기술력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해당 펀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 변경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환매주기도 절반 가까이 단축했다. 기존에 17시 이전 환매신청 시 4영업일 기준가로 9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원주 국민연금 CIO 1년 연임 확정

최근 10년간 두번째 연임 CIO
작년 수익률 13.6%, 전년 손실 회복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사진)이 1년 연임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서 CIO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26일까지다. 국민연금 CIO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CIO를 거친 4명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건 안효준 전 CIO 다음으로 두 번째다.

서 CIO는 지난해 12월 26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달 넘게 연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 CIO 임기는 2년이며 성과



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은 국민연금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서 CIO는 부임 첫해 운용 수익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마이너스 8.28%를 기록했지만 다음해 13.6%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며, 2022년 평균손실 약 80조원을 모두 회복했다.

올해 운용수익률도 해외 주식에 힘입어 1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12.57%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 '휴머노이드' vs LG '자율주행'... 로봇 패권경쟁 점화

2028년까지 시장 133조 성장 전망

삼성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AI·자율주행 로봇 산업·서비스 확장 반도체 자동화·가정용까지 다각화

LG 베어로보틱스로 상업 로봇 공략 클로이 통합, 물류 로봇 사업 확대 가전·서비스 연결 AI 홈 로봇 개발

인공지능(AI), 5G,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 산업이 전자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테슬라, 아마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1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28년까지 1000억달러(약 13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연평균 154%의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쉐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25 기조연설에서 본격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앞당길 플랫폼 '코스모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사진은 2족 보행 로봇 '휴보'. /삼성전자

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모스는 로봇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기술로, 창고·공장 자동화를 가속해 로봇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산업·휴머노이드 로봇과 서비스·기업 간거래(B2B) 로봇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휴머노이드



베어로보틱스의 AI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플러스'. /LG전자

로봇 개발을 가속하는 한편,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기존 14.7%에서 35%까지 확대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누적 투자액은 3542억 원에 달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11년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의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미래로봇추진단 신설 ▲삼성리서치내 로보틱스 연구 조직 강화 ▲자율주행·AI 기반 로봇 특허 출원 확대 등 로봇 기술 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사업장의 무인 공정을 위한 로봇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용 로봇을 제조·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하고,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AI 기반 집사 로봇 '볼리'와 웨어러블 로봇 '봇핏'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계획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다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로봇 추진사업단도 신설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자율주행 로봇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로봇 전략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자율주행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지분 30%를 추가 취득하며 51%를 확보, 자회사로 편입했다.

베어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된 AI 기

반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으로, 다수의 로봇을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시키는 군집 제어 기술과 클라우드 관제 솔루션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2017년부터 서비스로봇 시장에 진출해 현재 7종의 '클로이(CLOI)'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베어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식음료(F&B), 물류 배송 등 상업용 로봇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클로이' 중심의 상업용 로봇 사업을 베어로보틱스와 통합한다.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의 하정우 최고경영자(CEO)를 비롯 주요 경영진을 유입시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로봇 사업의 성장과 시너지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용·산업용 로봇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용 로봇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 사업본부에서 총괄하며, AI를 활용해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AI 홈 로봇'을 개발 중이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은 명확한 미래"라며 "현재 집중하고 있는 F&B·물류 배송 로봇을 넘어 이동형 AI 홈 허브 등 가정용 로봇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AI PC 대세 속 韓 점유율 1%대... 글로벌 반격 나선다

올해 글로벌 시장 1억대 돌파 전망 레노버·HP·델 등 해외 시장 주도 삼성·LG, AI 강화·가격 인하 반격

글로벌 PC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노트북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며 IT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세계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1%대'에 그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사는 AI 성능을 끌어올린 신형 노트북을 연이어 출시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시장입지 반전을 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AI PC 시장 규모는 2024년 4400만대에서 2025년 1억3000만대로 13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AI PC는 데스



삼성전자 모델이 AI PC '갤럭시 북5 시리즈'의 'AI 셀렉트'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삼성전자

크톱·노트북 등 기존 PC에 NPU라는 AI 가속기가 추가된 PC를 말한다.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PC와 큰 차별점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AI PC 시장이 본격

확대되면서 AI 노트북이 전체 노트북 시장의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은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커머셜(비즈니스) 노트북 시장에서 1위~3위는 중국 레노버와 미국의 HP, 델이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레노버가 이 기간 1688만 대를 출하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 2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HP 1372만 대 ▲델 989만 대 ▲애플 593만 대이고 이어 ▲대만 에이수스 497만 대 순이었다. 특히 에이수스의 경우 전년 동기(409만 대) 대비 21.6% 가하면서 상위 5개 기업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실제 올해 CES에서는 AI PC를 선점을 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치열했다.

인텔은 차세대 AI PC 기술의 핵심인 인텔 코어 울트라(Intel Core Ultra) 프로 세서를 선보였다. NPU를 통해 AI 연산을 전담처리해 CPU와 GPU의 부담을 줄여 이미지 생성 등의 AI 기능을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이전 모델보다 70%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RTX 5000 시리즈 GPU를 공개했다. MS(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플러스(Copilot Plus) 기술이 탑재된 미니 AI PC를 공개했다. 코파일럿 플러스는 진화된 NPU를 탑재해 기존 PC보다 20배에서 최대 100배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IT 기업의 양대산맥인 삼성·LG전자 등은 상위권에도 오르지 못했다. 양사의 시장 순위는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점유율은 1% 미만에 그쳤다.

이에 따라 양사는 더 강력해진 AI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을 내놓으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더 강력해진 갤럭시 AI와 탑재한 '갤럭시 북5 프로'를 공식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텔의 최신 중앙처리장치(CPU)인 루나레이크를 탑재해 AI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루나레이크는 전작 대비 AI 처리 성능이 3배 좋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신제품 가격을 인하하며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갤럭시 북5 360은 전작 가격대가 265만원~314만원이었지만 올해 모델은 242만6000원~292만6000원으로 최대 23만원 낮게 책정했다

LG전자는 CES 2025를 통해 '2025년형 LG 그램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 제품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의 '멀티 AI' 기술이다. 디스플레이는 LCD를 장착했고 필요에 따라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형 AI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멀티 AI' 기능을 적용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국내 벤처투자 11.9조 기록... 3년 만에 반등 성공

투자 유치 4697곳 집계 '역대 최대' 해외 벤처투자 韓시장 회복세 뚜렷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11조 9000억원을 기록하며 3년만에 반등했다. 특히 투자유치 기업은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은 4697곳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작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

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대비 47.5%,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전망했다.

2021년 당시 15조9371억원을 찍은 국내 투자 규모는 2022년 12조4706억원, 2023년 10조9133억원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성장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3분기

대비 5%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분기별 평균값인 3조원보다 10% 높았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ICT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지난해 펀드결성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13조대비 약 9.2% 감소했다. 반면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벤처 투자는 시중 금리의 등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또 한국의 벤처 투자시장은 글로벌 추세와 상당히 궤를 같이하고 있어 결성액의 경우 다 같이 하락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그나마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에 대비해 볼 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원)을 지난 1월 공고했다. 이를 통해 미충분을 조기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2024년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발표한 '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Gallery 

霜松常菁

고재봉 초대전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KO JAE BONG

2.18(화) - 3.1(토)
갤러리아람

주최 Gallery  후원  동성계약 신안동방갤러리

• 관람시간 11:00-19:00 *일·월요일 정기휴관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추진... '전국 1위' 목표

현재 인증면적 1660ha... 전국 4위 올해 6160ha까지 확대할 예정 오는 21일까지 상반기 신청 받아



저탄소 인증 농가

/전남도

전라남도는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해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6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2024년 12월 현재 전남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1660ha로 전국 4위(11.7%)다.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순위는 1위 전북 4427ha

(31.2%), 2위 경북 3303ha(23.2%), 3위 충북 1766ha(12.4%), 4위 전남 1660ha(11.7%), 5위 경남 892ha(6.3%)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녹비작물 재배, 제조용 생물자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만 농사를 지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6160ha(기존 1660ha·신규 4500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산물)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생산현황 보고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국가인증서 ▲저

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등이다.

인증비는 100% 지원(건당 100만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그린푸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농업도 예외일 수 없고,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남이 유기농 중심의 저탄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0월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액은 2020년 553억 원에서 2023년에는 82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특례시 올해 4만4452개 일자리 창출

창원특례시는 '2025년 창원시 일자리 종합 대책'을 통해 4만 44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5.8% 증가한 수치다.

시는 민생 안정·인구 대응, 기업 지원, 시설 투자 등 4대 분야, 41개 역점 전략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청년 및 노인 일자리 분야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1778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 일자리 확대 ▲여성·장애인·외국인 고용 지원 ▲청년 일자리 ▲중장년 재취업 및 전역 장병 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전국 체전 청년기자단 모집

경상남도는 오는 5월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9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청년기자단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체전에 관심이 많고 기자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19~34세 청년이며, 심사 기준은 콘텐츠 제작 능력, SNS 활동 경험, 열정 및 참여 의지 등으로 보내 거주자 및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을 우선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위촉일에서 체전이 개최되는 5월까지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전 누리집·인스타그램, 개인 온라인 채널 등에 게시해 전국에 체전 소식을 알리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주시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경주시는 재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과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1분기 내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310대를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강동면 국당리·오금리 등 재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총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해 강동면 오금3·4리(108대), 국당2·3리(202대) 등 총 310가구에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주(경북)=최지우 기자 asdadx@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2년연속 선정

전남 나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수행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앞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나주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구미시, '영유아 성장검사' 도입

경북 첫 '더자람 영유아 성장검사' 오는 3월 영유아 5200명 검사 실시

구미시가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더자람 영유아 성장검사'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언어 발달과 사회성이 지연되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5200명을 대상으로 성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투입하며, 가정 양육 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마음상담소에서 발달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이 진행하며, 보호자와 어린이집에 개별 결과를 제공한다. 발달검사는 답안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솔루션을 지원하며, 기질검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해 자녀의 기질별 양육 방안을 안

내한다. 지난해 3세 영유아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구미시는 올해 대상 연령을 확대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로 검사 범위를 넓혔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음상담소에서 추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 개관한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자녀 체형 프로그램, 육아 상담, 부모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내 육아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온가족 숲 체험 ▲어린이 뮤지컬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4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방식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 '육아쉽포 공모사업'에서 경북 유일 선정돼 국비 1400만원 확보 및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2029년 개통 예정

울산시는 지난 10일 도시철도 1호선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트램 1호선은 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대화강역에서 신북 교차로까지 길이 10.85km, 정거장 15개소의 노선을 친환경적인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814억원으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주요 가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 도로 중앙에 복선 트램 선로를 설치하고, 차량 9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0분, 기타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에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했다. 또 트램 건설로 인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교통 체계 효율화 용역'을 시행, 공업탑 로터리의 체계 개선과 차로 운영 계획 등에 대해 경찰청 등 교통 전문가와 사전 논의했다.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가 진행된다.

울산시는 공사 기간 최소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 방식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는 3월 중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순천시, 소상공인·시민 지원정책 마련

1500억 상당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시는 도내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지난 9일까지 총 502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또한,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총 8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요금 3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민생경제 회복 체감형 지원책을 강화했다.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5인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된다. 지난 3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첫 주에만 9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목포시,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올해 9월 완공 목표

목포시는 서남권 9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 완도, 진도, 해남, 영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플랫폼은 평화로 82 일원(평화광장)에 위치하며, 2023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은 서남권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은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이 마련되며, 방문객을 위한 안내데스크와 수유실도 포함된다. 2층은 기념품 등 지역 관광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 플랫폼이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한화, 아워홈 인수는 했는데... 자금·수주이탈 등 과제 산적

구지은 '우선매수권' 반격 예상
한화, 자금 조달액 2500억 불과
총 인수액 8700억... 3분의1 못미쳐
아워홈의 범LG가 물량 약 110곳
급식사업 수주 이탈에 대비해야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홈

한화그룹이 국내 2위 급식 식자재 기업인 아워홈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완전히 품에 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과 인수 자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11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사회를 열어 아워홈 지분을 인수하고 '우리집에프앤비(가칭)'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대상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장녀 구미현 회장(19.28%) 및 특수관계인(0.76%)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1340만 주(58.6%)다. 아워홈 최대 지분인 58.6%를 사들인만큼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구지은 '우선매수권' 행사에 이목 쏠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다. 아워홈 매각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구지은 전 부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녀인 구명진 씨(19.6%)와 구지은 전 부회장(20.67%)의 합계 지분은 40.27%다.

아워홈은 정관에 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나머지 주주들이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명시해놨다.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PE F인 어필마케팅과 손잡고 우선매수권 행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든든한 재무적 우군을 확보한만큼 구 전 부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아워홈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족한 자금 어떻게 확보할까

아워홈 인수 자금은 또 다른 과제다. 아워홈 인수전에서 한화는 다른 계열사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화비전으로부터 2000억~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한화비전은 IT 솔루션 등의 사업과 급식 사업의 시너지가 제한적이라고 판단, 인수 투자 참여 의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이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금 조달 규모는 2500억 원에 불과하다. 총 인수 금액(87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사모펀드인 IMM크레딧솔루션으로

부터도 2500억~3000억원을 끌어온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294억원에 불과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거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투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로 인수단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범LG가 급식 수주 '뺨그덕'

아워홈의 수주 사업이 빠져나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범LG에 속한 아워홈이 한화그룹 품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LG계열사에서 수주한 급식사업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아워홈은 20여년 전 계열분리가 이뤄졌음에도 범LG가 급식사업장 다수를 수의계약으로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 아워홈의 범LG가 물량은 약 110곳으로 파악되며 LG그룹 80여 곳, LS그룹 20여 곳, GS 10여 곳, LX그룹 5곳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LG디스플레이와 주 사업장과 구미 사업장이 경쟁입찰 물량으로 풀리는 등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마곡동에 소재한 LG사이언스파크 급식 사업장 역시 아워홈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워홈과 범LG가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한화는 2020년 한화호텔앤드리

조트의 급식·식자재유통 부문(현재 푸드스트)을 국내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손을 뗐다. 철수 5년 만에 다시 급식·식자재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김동선 부사장의 푸드테크 사업 확장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사장은 2022년 한화갤러리아에 합류한 뒤 이듬해인 2023년 미국 햄버거 브랜드인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론칭했다. F&B 사업과 함께 푸드테크를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그는 지난해 2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부문 자회사 '더데이터블'의 사명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하고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를 인수했다.

이번 아워홈 인수도 계열사간 시너지를 낼 것이라 판단 하에 추진됐다. 한화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급식 서비스에 접목하면 미래형 푸드테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다 현재 아워홈은 국내 2위 급식 기업으로 대규모 식자재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화그룹에서 운영중인 F&B 사업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워홈을 놓고 우선매수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고, 인수하더라도 급식 사업 수주 건이 대거 빠져나가면 인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 "AI로 탈모진단·스타일링 하세요"

천호점서 '스타일 업! AI 팝업' 운영
리필드·트위닛·사맛디 AI기업 참여



이달 16일까지 진행되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AI 체험형 팝업스토어에서 고객이 '사맛디 AI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이달 16일까지 천호점 1층 뷰티 팝업스토어 행사장에서 '스타일 업! AI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리필드, 트위닛, 사맛디 등 세 곳의 인공지능(AI) 기업이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가장 먼저, 리필드는 두피 스캐너를 활용해 사용자의 두피 상태를 측정하고 AI를 통해 탈모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발 두께, 두피 유분도, 염증 여부, 연령대별 탈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인 맞춤형 탈모 케어 제품과 솔루션을 추천한다.

트위닛은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해 피

부 톤과 얼굴형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인 맞춤형 스타일과 헤어 컬러를 추천하고, 얼굴의 상·하안부 및 가로·세로 비율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사맛디는 사용자가 착용한 의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종류, 색상, 소재, 패턴 등을 분석한다. AI가 사용자의 패션 스타일을 파악한 후, 어울리는 맞춤형 의류 제품과 스타일링을 추천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들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쿠팡, 제주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작

자정까지 주문시 익일 오전 7시 배송
인구 밀집지역 시작... 전역 확대 계획

쿠팡이 제주 지역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 자정까지 일정 금액 이상 신선식품을 주문한 와우 회원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제주도·서귀포시 등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당일배송 서비스도 도입한다.

총 400여 종의 신선식품이 무료 새벽배송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대표 품

목으로는 계란, 두부, 정육을 비롯해 김치, 깍두기, 젓갈과 같은 발효식품, 만두, 즉석국 등 냉장·냉동 간편식이 있다.

쿠팡은 앞으로 주문 가능 품목을 1700여 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라면, 스낵, 즉석밥, 양념류 등 상온 보관 식품과 세제, 샴푸, 치약 등 생활·주방용품, 그리고 가전·뷰티·문구류를 포함한 일반 상품 8000여 종을 새벽배송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새벽배송 서비스는 쿠팡이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신선식품의 보관·출하·배송이 가능한 마이크로필먼트센터(MFC)를 구축하면서 도입됐다. /안재선 기자

홈플러스, 식품+비식품 PB '심플러스'

1400여종 PB 상품 선보여

홈플러스가 브랜드 개편을 통해 식품과 비식품을 아우르는 통합 자체 브랜드(PB) '심플러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심플러스'를 통해 총 1400여 종의 PB 상품을 한 번에 선보인다. 기존에는 식품 부문에서 '홈플러스 시그니처'를, 비식품 부문에서 '심플러스'라는 별도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해 왔다. 다만, 밀키트와 냉장 간편식 120여 종은 기존 간편 미식 브랜드

'홈밀'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핵심 품질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필수 품질에 집중하고, 절감된 비용을 가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자체 브랜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홈플러스 PB 상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분기별 최대 10%, 품목별 최대 67% 성장했다. /안재선 기자

다이소물 달콤한 뷰티상자 행사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몰에서 '다이소-데이(D aiso-DAY) 달콤한 뷰티상자' 행사를 진행한다

다이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최근 입점한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브랜드를 포함한 신상품과 일부 인기 상품의 재고를 추가로 확보해 선보인다. 또, 메이크업 콘셉트 및 단계별 뷰티 아이템을 추천하는 코너도 준비했다. 먼저 브랜드 신상품 코너에서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브랜드의 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뷰티용품을 소개한다. /안재선 기자

롯데마트, 쌀·무 등 필수식품 할인전

19일까지 '더 핫' 프로모션

롯데마트는 이달 19일까지 '더 핫' 프로모션을 통해 쌀, 무 등 필수식품을 할인가에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더 핫'은 롯데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물가 안정 캠페인이다. ▲이번 주 핫 프라이스 ▲이달의 핫 자체 브랜드(PB) ▲공구 핫딜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고객 투표로 할인 품목을 선정하는 소통형 프로모션 'My 핫 프라이스'도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프로모션의 일환

으로,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정갈한 쌀' 상품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가로 제공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행사 상품은 일반 브랜드 쌀(10kg)보다 40% 이상 저렴하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고객이 쌀(10kg)과 즉석밥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투표 결과를 반영해, 특가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에는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0%가 쌀을 선택했다.

/안재선 기자

유한양행, 연매출 2조 돌파... “임상·파이프라인 구축 집중”

‘렉라자’ 라이선스 수익 증가 영향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美 진출 향후 연간 50억달러 매출 전망 YH35324로 기술수출 기대감 ↑

유한양행이 국내 정통 제약기업으로 처음 연간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약개발에 속도를 낸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지난 2024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2조6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줄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80억원으로 64.3% 급감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라이선스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렉라자가 미국 의약품 시

장에서 상업화되면서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stones을 수령하게 됐다.

현재 렉라자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는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국에 대해서만 권리가 제한됐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향후 연간 50억달러(약 6조64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마일stones 등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처럼 유한양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된 ‘렉라자’는 일찍이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물질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7월 미국 제노코사로부터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비임상 및 임상연구 등을 활발히 했다. 이후 2018년 11월 렉라자를 존슨앤존슨에 기술수출하고 후기 임상 단계를 완성하는 등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성공과 유사한 전략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YH35324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를 비롯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2020년 7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됐고 최근에는 ‘YH35324’ 임상 1b상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임상에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YH35324와 ‘졸레어’의 약물 효과를 비교한 결과, YH35324 투여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가 졸레어 투여군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YH35324 경쟁 약물인 졸레어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로, 글로벌 매출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비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2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억원 증가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3% 수준으로 커졌다.

유한양행은 앞서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66억원, 2022년 1071억원, 2023년 1199억원 등으로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렸다. 유한양행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기술수출, 매년 2개 이상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진입 등의 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매출 개선과 이익 성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전문 역량 지표인 임상 진입과 파이프라인 구축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WHO ‘사스 국제표준물질 연구’ 참여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프로젝트 완료 면역원성 분석 등 핵심 역할 수행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사스(SARS) 바이러스 국제표준물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스 바이러스 국제표준물질을 발표했다. 국제표준물질은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 물질이다. 국제표준물질이 없으면 백신 및 치료제의 유효성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표준물질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면역원성 분석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국제표준물질은 향후 전 세계 연구기관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영국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청(MHR

A), 중국 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NIFDC) 등 글로벌 공중 보건을 선도하는 12개 보건 당국과 기관들이 함께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국제기구와 연구 협력을 지속해 자사 기술력을 입증하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미래 팬데믹 대응 프로젝트인 ‘100일 미션’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의 임상 1/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는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코로나19(SARS-CoV-2) 국제표준물질 확립 연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림대성심병원 ‘Mobile ICU’(왼쪽)와 일반 구급차.

한림대성심병원, ‘움직이는 중환자실’ 운영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범식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5일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 출범식을 갖고, 중증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Mobile ICU는 중증환자 이송을 위해 특수 제작된 전담구급차로, 의료진이 차량 내에서 중환자실(ICU)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린다. 한림대성심병원은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4년 11월부터 Mobile ICU를 운영하고 있다.

Mobile ICU는 일반 구급차보다 1.5

배 넓다. 내부에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인공호흡기, 환자 모니터링 장비, 고유량 산소치료기 등 중증환자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장비가 탑재돼 있다. 또한 일반 구급차보다 더 많은 내부 전력을 쓸 수 있고, 산소통도 일반 구급차에 비해 4배 이상 실을 수 있어 ECMO와 인공호흡기 동시 사용이 가능해 장거리 이송에도 적합하다. 출동 시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함께 탑승한다.

한림대성심병원은 향후 중증환자의 병원 간 이송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현장 의료지원, 항공이송과 연계한 중증환자 이송 등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아제약 충치·잇몸 관리해주는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

동아제약은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은 충치 예방 성분인 불소를 1450ppm 함유하고 있다. 기존 제품인 검가드 센서티브 치약 대비 불소 함량을 높였다. 잇몸 혈액순환을 돕고 민감해진 잇몸을 관리해주는 토크로폴아세테이트 성분도 포함한다.

카모마일추출물, 카란티라엑스, 녹차추출물 등은 친환경 성분으로 국제 유기농 공인인증기관인 에코서트와 미국 농무부(USDA)에서 인증을 받았다.

시원한 아쿠아 민트 향으로 상쾌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동아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검가드 제품군을 확장해 잇몸 관리 전문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 수자원 관리분야 ‘A- 리더십’

CDP 평가서 ESG 역량 입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A- 리더십’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DP 평가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을 갖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표로 꼽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목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야만 상위 등급 획득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CDP 평가 등급은 리더십(A- 또는 A)부터 관리(B- 또는 B), 인식(C- 또는 C), 공개(D- 또는 D) 순으로 분류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평가에서 자연자본전략 및 수질 오염 관리, 수자원 재이용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자원의 취수·방류·소비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 등의 활동을 인정받으며 ESG 역량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 경영에 집중해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 ‘SMI’에서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는 등 ESG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SMI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한 기업에만 수여하는 ‘테라 카르타 실’을 수상하기도 했다.

SMI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초콜릿·향수 등 최대 43% 할인

‘밸런타인데이’ 맞이 행사 진행

CJ올리브영이 오는 16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초콜릿, 향수, 화장품 등 5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43% 할인하는 ‘밸런타인데이’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온라인몰에서는 연인 선물, 베스트 선물, 달콤 선물, 향기 선물 등 4가지 주제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뷰티 브랜드 ‘달바’의 하



‘밸런타인데이’ 맞이 행사 /CJ올리브영

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자체 브랜드인 ‘아이디얼포맨’의 파펙트 올인원 토트넘 핫스퍼 한정판 등을 이번 행사 대표 제품으로 내놓는다. 이밖에 밀카 버블리 초콜릿부터 섹스 퍼플 등 향수 제품까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도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Vivid
**STRAWBERRY
 MOMENT**



하와이안 베리볼
 Hawaiian Berry Bowl
7.4 ICE ONLY
 *스푼이 함께 제공됩니다

생딸기주스
 Real Strawberry Juice
6.9 ICE ONLY

생딸기&생바나나 라떼
 Real Strawberry & Banana Latte
6.9 ICE ONLY

ANGELINUS



현대차, 日 '레이싱카 & 슬릭타이어 클래스' 출전

현대차는 15일 일본 츠쿠바 서킷 코스 2000에서 개최되는 '레이싱카 & 슬릭타이어 클래스'에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을 출전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최고 기록 수립을 위해 일본 인기 카레이서 타니구치 노부테루와 협업한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



우리금융, 쪽방촌 주변환경 개선... 겨울나기 지원

우리금융그룹은 새해 첫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역 쪽방촌의 취약계층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그룹 소속 15개 그룹사 임직원들은 쪽방촌 주변의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점검했다. 또한 도시락 등 식료품을 직접 전달하고, 푸드마켓을 방문해 물품 기부 및 창고 정리도 진행했다. /우리금융그룹



롯데건설-부산연탄은행, '이웃연애 밥상나눔' 봉사

롯데건설은 지난 10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산연탄은행에서 '이웃연애 밥상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샐러드 봉사단은 식사 200인분을 홀몸 및 인근 재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윤수준 롯데건설 영남지사장(오른쪽)과 강정철 부산연탄은행 대표가 연탄과 라면 기증판 전달식에 참여해 포즈를 취했다. /롯데건설



그라비티네오씨아이-이화여대, 늘봄학교 업무협약

그라비티의 자회사 그라비티네오씨아이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라비티네오씨아이는 이화여자대 늘봄학교 사업단의 '2025년 늘봄학교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업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라비티네오씨아이

에코프로, '에코브리지' 6기 모집

에코프로는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6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에코브리지는 에코프로와 굿네이버스 대전충북 사업본부가 함께 운영하는 대학생 봉사단으로 에코프로의 '에코(Eco)'와 다리를 뜻하는 '브리지(Bridge)'의 합성어다.

에코브리지 6기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전국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타기관 대외활동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신입사원 만남 조현범 회장... "멈추지 않고 도전해야"

한국엔컴퍼니그룹 그룹차원 신입사원 환영 행사 진행 조 회장 "'소통·협업·창의' 3C 중요"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이 그룹 신입사원들에게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하이테크 연구소 테크노돔에서 열린 '2025 한국엔컴퍼니그룹 신입사원 환영행사'에 조 회장이 참가해 신입사원 등 임직원과 소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가 신입사원 환영 행사를 그룹 차원으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가운데)이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하이테크 연구소 테크노돔에서 열린 신입사원 환영행사(PLWD)에 참가해 직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박종호 한국엔컴퍼니 대표, 안종선·이상훈 한국타이어 공동대표, 그룹 임직원, 신입사원 149명 등 총 200여명이 참가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신입사원과 대화에 나선 조 회장은 소통(Communication)·협업(Collaboration)·창의(Creation) 등 3C를 신입사원이

찾춰야 할 기본기로 꼽았다. 아울러 조 회장은 그룹 최우선 가치로 '혁신'을 꼽으며 문제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경영이든 업무든 '별일이나 문제 없이 모든 게 잘 된다'는 태함이 가장 위험하다"며 "우리가 삶이나 직장 생활을 대할 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태도"라며 "가만히 있는 이상 혁신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실패할 각오를 하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 보조 사회자가 함께 진행자로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여경협, 박창숙 11대 회장 취임

글로벌 진출 확대 등 5대 과제 제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박창숙 11대 회장(사진)이 12일 취임했다. 신임 박창숙 회장은 '5대 중점 추진과제'로 ▲협회 대표성 강화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여성특화 기술기반 산업 육성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체계 정비 ▲여성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회원 1만명, 일반회원 10만명을 목표로 2040세대의 젊은 여성경제인을 적극 유치하겠다"며 "다양한 규모와 업종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구성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날 이취임식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정성호·이인선·조은희·신동욱·강명구·오세희 국회의원과 그리고 제8대 여경협회장을 역임한 한무경 산업융합혁신처장 등 내외빈, 여경협 회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여경협은 이날 이정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추대패와 기념앨범을 전달하며 임기동안 협회와 여성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美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

제네시스, 타이틀 스폰서 참여 제네시스는 12일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토너먼트 대회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산발 피해로 인해 지난해 대회가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이 아닌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16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3위 로리 매킬로이, 5위 마쓰야마 히데키 등 7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제네시스는 GV70, GV80 등 750만 달러 상당의 경기 운영 차량 총 100대를 대회 종료 후 주요 구호기관에 기증하는 '캘리포니아 라이즈 캠페인'을 진행한다. 버디나이글마다 300달러, 홀인원마다 1만 달러를 적립하는 '버디 포 굿' 이벤트를 진행해 구호 기금도 모금한다. /양성운 기자

에쓰오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 참여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사진)이 오픈 이노베이션 멤버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에쓰오일은 지난 11일 울산시가 주관하는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에 참석해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스타트업 허브'는 지역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자 및 창업지원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 창업지

원 플랫폼이다.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전담기관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는다. 에쓰오일은 이번 개소식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울산 스타트업 허브의 오픈 이노베이션 멤버로서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요 업체 발굴, 기투자업체 성장 지원 등의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남양유업, '케토니아' 후원 확대

의료기관 뇌전증 환자 치료 지원

남양유업은 '세계 뇌전증의 날'을 맞아 뇌전증 환자를 위한 특수분유 '케토니아' 후원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환자가 정 지원을 넘어 병원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특수분유를 신속히 공급해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남양유업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맛있는유유GT', '17차' 등 남양유업 대표 제품을 전달하고, 의료기관 대상으로 케토니아 무상 지원 신청



남양유업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식'에 참석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케토니아 무상 지원 신청을 받았다. /남양유업

을 받았다.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향후 정기적으로 케토니아를 공급하며, 병원 내 뇌전증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치료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음

▲홍순진님 별세, 홍정표(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홍준표(딜 대표), 홍현정(에이치투에이 건축연구소 대표)씨 부친상 = 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4일, 02-3010-2000.

▲이동민씨 별세,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위씨 모친상, 최춘자시 시모상, 이재욱(BBQ 부장)·유진(월드 이사)·유정(첼리스트)씨 조모상, 정문재(연세대 의대 교수)씨 처 조모상 = 11일 오전 4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02-2227-7500

LS머트리얼즈, 에코바디스 '브론즈' 등급

LS머트리얼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 LS머트리얼즈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브론즈'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지난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ESG 평가기관이다. LS머트리얼즈는 이번 첫 평가에

서 상위 35%에 해당하는 브론즈 등급을 받았다. 특히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 등 환경보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으로 노동·인권 분야에서,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 기준 확대 적용으로 지속가능한 조달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시행사와 체결한 특약, 신탁사엔 효력 없어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같은 신탁사와 근린생활시설 1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시행사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형병원이 입점된다고 하면서, 입점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형병원은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점포의 환매를 특약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같이 체결한 특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신탁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시행사만 기재돼 있다

면,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에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분양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할인분양이나 환매를 약정한 특약들 모두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77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01211 판결).

위 특약들 모두 시행사가 신탁사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점, 심지어 분양계약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한 불이행,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는 어떠한 불이행, 착오, 기망도 없

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해제권 유보특약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사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확약서는 위탁자(시행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수탁자인 신탁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26070 판결).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자가 신탁사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점에서 시행사가 신탁사를 대리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치싸움에 밀려난 정책서민금융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지난달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한 이유로 상여금을 들었다. 연말·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이 더해지며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갚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답변에는 의문점이 생긴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1.5조원을 시작으로 2월과 3월 각각 2.8조원,

2.2조원 감소하는 등 연간 5조9000억 감소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년간 52조원이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조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빌리는 대출로 주로 생활비 마련, 긴급자금 마련, 학자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비 명목의 대출은 줄었다는 것이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줄이면 이에 밀려난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책서민금융의 증액 논의가 중시돼 기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공급 규모는 170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2800억원) 대비 1100억원 줄었고,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2000억원 공급해 전년(3000억원)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쥐가 거세게 반항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도망갈 구멍을 내주고 쫓으라는 의미다.

지금 궁지에 몰린 서민 등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되레 경제적 재기를 막아내수경기 회복은 더욱 더뎠을 수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빛의 굴레에서 나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13일 (음 1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48년생** 기쁨과 근심은 종이 한 장차. **60년생** 바람이 불어도 모두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72년생** 공짜를 바라지 말고 투자를 해라. **84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피자.
- 37년생** 주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49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6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73년생** 집나오니 가면 갈수록 점점 산중. **85년생** 소피 지인이 어려운 일을 도와줘 쉽게 해결.
- 38년생** 비정상적인 만남은 반드시 말뚝을 부린다. **50년생** 분수를 지켜 성의를 다하라. **6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방법. **74년생** 거울은 반드시 혼자 웃지 않는다. **86년생** 믿은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믿어라.
- 39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51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이다. **63년생** 가족 간에도 신용은 지켜야 한다. **75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면 된다. **87년생**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하다.
- 40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도움이 된다. **5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이 먼저 아닌가. **64년생** 누구를 위한 희생인지. **76년생** 반려 아이를 키우려면 심사숙고해야. **88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
- 41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53년생** 이성을 만나 지출이 많다. **65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아프다. **77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8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 좋은 날.
- 42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하려 하겠다. **54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흡족하다. **78년생** 조직 생활에서 수박 겉핥기로 다니지 않도록. **90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 43년생** 막혔던 금전문이 해결된다. **55년생** 어떤 결과도 내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67년생** 마음먹었다면 쇠뿔도 단김에 빼라 했는데. **79년생** 신선한 먹을거리를 선물 받는다. **91년생**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드는 계획을.
- 44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5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68년생**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80년생** 생각 보다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 **92년생** 이제는 돌아갈 수 없기에 지난날이기에 더 생각한다.
- 45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뜻을 이룰 수 있다. **57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한다. **69년생** 가까운 사람의 병문안 갈 일이 있다. **81년생** 갈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93년생** 오늘이 시작하기 좋은 날이니 움직여라.
- 46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을 모르니 마음을 비워라. **58년생** 자신감은 내면에서 온다. **70년생** 입을 무겁게 하고 사람을 만나라. **82년생** 바로 옆에 의외의 귀인이 있다. **94년생** 아침에 집 안 청소를 시작하여 정리를.
- 47년생** 큰 단체에서 일거리를 맡는다. **59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71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지친다. **83년생** 손풍에 돛을 달듯이 마음먹은 일이 순조로운 하루. **95년생** 흥도가 가슴이 아프게 애 울었는지 살펴보니 알겠더라.



김상회의四季

행운은 어디에 ②

사람들은 행운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 그러나 원인을 짓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복권도 사지 않으면서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을 기대한다. 물론 복권을 샀다 해서 복권에 다 당첨되는 것은 아니다. 큰돈에 당첨되는 것은 조상님 덕이나 황제라고 하는 큰 운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도 다 안다. 그러나 좋은 꿈이라도 꿴다고 생각되면 대부분 사람이 복권부터 사는 것이리라.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보다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돈을 벌려 해도 월급은 뺄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치솟으며, 돈 나갈 데는 또 왜 그리 많은지 그렇기에 황제를 바라는 것이 무리는 아니기도 하다. 그래서 팔자소관을 탓하기도 하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인기를 얻어 엄청난 부를 얻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그만큼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건 많이 간과하는 것 같다. 물론 돈이 돈을 버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노력도 없이 누워서 감 떨어지듯 돈을 버는 건 아니란 얘기가.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한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큰 부자는 전생에 그 복밭의 원인을 지었다는 것이고 현생에 그 복밭이 발현되었다는 뜻이다. 사주 명조는 전생의 업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큰 부자들이 이생에 태어나 가만히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다. 사업을 일구기 위해 처절한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결과다. 작은 부자는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은, 근면하게 노력하면 최소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자기 삶을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행운을 따로 바랄 것이 없다. 성실만 해도 작은 부는 따라오니 이것이 행운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9	7	2	1	4
			8	1	5	
		5	6	3		
1						2
			3	6		
6						7
			6	3		2
		9	4		7	
7	3	2	9	5	6	8

3	4	6			2		9	5	
7					9			1	
	8				7			6	
9		4		6					
			7		9				
				4		6		7	
5			2					6	
4		5						9	
1	7		6				2	5	3

1	8	9	5	6	2	8	2	7
2	8	2	1	7	6	9	9	
7	9	2	6	8	9	2	1	8
2	1	6	7	2	9	8	9	8
9	6	2	9	8	8	1	7	2
9	2	8	8	9	2	7	6	1
8	7	8	9	1	9	2	6	1
6	9	9	1	7	8	2	8	2
8	7	1	2	2	6	9	8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무늬만 태양광사업자’ 망 계약 해지… 신규 사업자에 배분

산업부, 허수사업자 물량 1.7GW 대기 수요 많은 호남 먼저 접수하고 기타지역 1.4GW 내달까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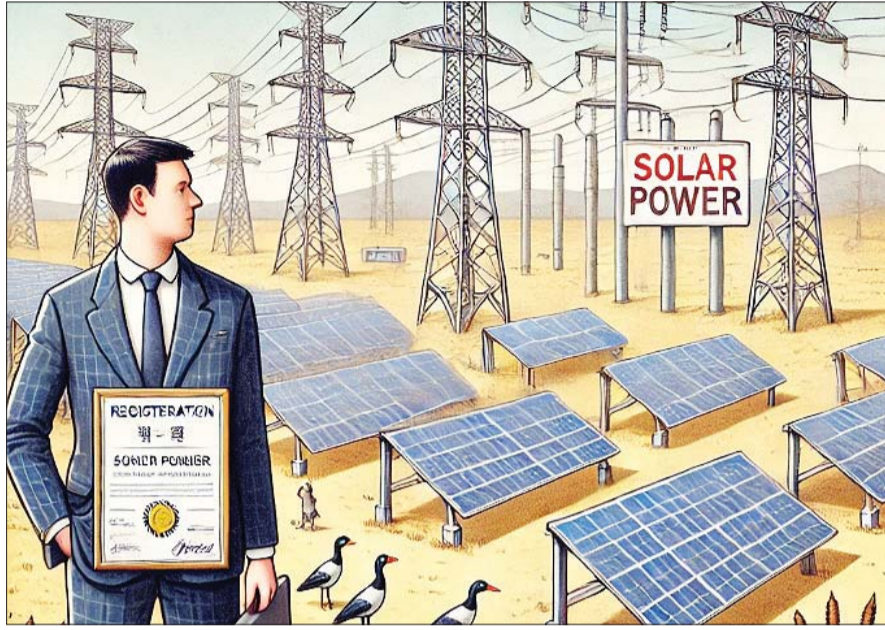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물량이 신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배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의 허수사업자 물량이 확인됐다.

허수사업자란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간 발전설비 공사 등 일체의 발전사업 행위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다.

전력당국은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 실적이 전무한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확보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만 선점하



챗GPT가 생성한 허수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표현한 이미지.

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의 신규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며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추진, 발생한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기 수요가 많은 호남권에서 확보한 여유물량 336MW(메가와트)를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0시부터 여유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한다.

이어 3월 중 나머지 호남권 제외 기타 지역(1.4GW) 대상 후순위사업자 분배, 3월 말까지 잔여물량 대상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지역 회수 용량은 강원권(533MW), 영남권(507MW), 수도권(325MW), 충청권(49MW) 순이다. 발전사 대상 설명회는 18일 오전 한전 경인건설본부(잠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어 상시화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이며, 2031년까지 32GW 규모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돼, 총 43GW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 추진 중이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 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기업 수출 12% 증가… 중견기업은 감소

통계청, 작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수출 10대기업 수출액 2503억 달러 중견기업은 전년비 0.7% 줄어 들어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10% 넘게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에선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 폭은 5% 미만이었다. 대기업에서는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부문이 수출 호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대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났다. 2022년(+6.0%)과 2023년(-8.6%)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0.7% 줄었다. 더욱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작년 상위 10대 수출기업 무역집중도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503억 달러였다. 이는 전년(2077억 달러) 대비 20.5% 증가한 액수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집중도)은 지난해 36.6%에 달했다. 2018년(37.8%) 이후 6년 사이 비중이 가장 컸다. 비중이 전년도(32.9%)에 비해 3.7%포인트(p) 늘어났다.

수출 기업 수는 지난해 9만9181개로 전년(9만7224개)보다 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수출액은 도소매업(-1.8%), 기타 산업(-3.4%)에서 감소했으나 광·제조업(10.2%)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 등

반도체 경기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규모별로, 지난해 수출액은 10~249인(-1.2%)에서 줄어든 반면, 1~9인(8.1%)과 250인 이상(10.3%)에서 늘었다. 재화성질별로는 원자재(-3.1%)에서 줄었으나 자본재(17.9%)에서 증가했고 소비재는 보험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중동 지역 기업들의 무기 화학물 등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청년 영농정착 핵심요소 ‘스마트 농업’

송미령 농식품장관, 홍성 ‘옥토팜’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년들의 성공적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로 ‘스마트 농업’을 꼽았다. 정부는 스마트 농업 확산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12일 오후 충남 홍성에 위치한 스마트팜 ‘옥토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들과 함께 미래농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는 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이 적용된 토마토 재배시설이 소개됐다. 이어 ‘스마트 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년 농림축산식품



부 업무계획 3번째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송 장관은 “스마트 농업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확산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업기계 및 자동화 지원 ▲전후방 농업인 창업기업 지원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5월 개설

청정수소발전사업자 간담회 열어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5월 개설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일 서울 석탄화관에서 국내 주요 청정수소발전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2024년 세계 최초로 개설됐으며 작년 연 750GWh(기가와트시) 규모가 낙찰된 바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작년에 처음 개설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발견에 의의가 있었다”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우리

나라의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입찰시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 발전공기업과 SK이노베이션E&S, 한화임팩트, 포스코인터네셔널, 삼성물산, 롯데케미칼이 참석했으며,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각각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인증 예비검토 컨설팅 추진 일정(안) 등을 공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수거·재활용 추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약 연간 3000t 철·알루미늄 회수 전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에 수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3000톤(t) 이상의 철, 알루미늄 회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경기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론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

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파쇄나 선별에 추가 비용이 드는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 다량으로 포함돼 있어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해 왔다. 또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대상도 아닌 탓에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러 군용기, 폴란드 영공 6.5km 침범…“항법 시스템 고장”
▲‘미국 관세 우려’ 속 중테무, 생산업체에 “美에 직접 배송”

▲이스라엘, 韓 ‘여행경보 하향’ 환영…“더 많은 관광객 오길”
▲中 부총리, 프랑스 AI 정상회의서 “성과 공유하려 한다”

▲日정부,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필요한 대응 철저히 하겠다”
▲美 공화당 의원 ‘트럼프 야욕’ 그린란드 명칭 변경 법안 발의



한화
아워홈 인수 결정
경영권 분쟁 등 과제
L1



Life

유한양행
연매출 2조 돌파
신약개발 속도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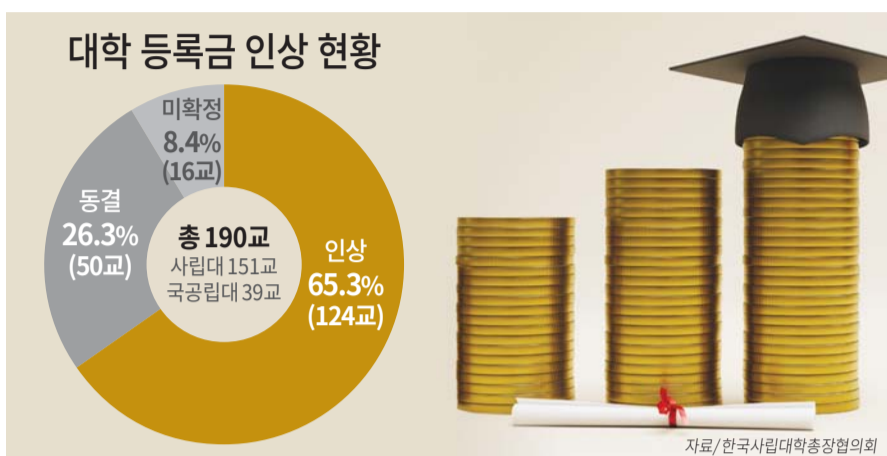
대학 65%, 등록금 인상...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 불가피”

124곳 인상, 50곳 동결, 16곳 미정
인상률 '5.00~5.49%' 가장 많아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국 190개 대학 65.3%에 해당하는 124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50곳은 동결을 결정했고, 16곳은 아직 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1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사립 151곳과 국공립 39곳 등 총 190개 대학 중 124곳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특히 사립대학 중에는 75.5%(114개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한 곳은 10개교(25.7%)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립대 수도권 64개교 중 55개교(85.9%)가, 비수도권 87개교 중 59개교(67.8%)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대학은 수도권 8개교 중 3개교(37.5%), 비수도권 31개교 중 7개교(22.6%)가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대학은 50개교로 전체 대학의 26.3%를 차지했다. 이중 사립대학은 23개교, 국공립대학은 27개교다.

전체 대학 중 8.4%인 16개교는 아직 오는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 124개교의 인상률을 보면, 53개교(42.8%)가 '5.00~5.49%'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 가운데 8개교(사립 5개·국공립 3개)는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으로 정한 5.49%까지 올렸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인상률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II유형 국비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려고 가능한 한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4.00~4.99%(51개교, 41.1%) ▲3.00~3.99%(8개교, 6.5%) ▲2.00~2.99%(2개교, 1.6%) ▲1.00~1.99%(2개교, 1.6%) 순이다.

사총협은 지난해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도 공개했다. 2024년도 대학 평균 등록금 분포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000원이며,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만9000원, 국·공립은 421만1000원이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만6000원, 비수도권은 627만40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000원) ▲예체능(782만8000원) ▲공학(727만7000원) ▲자연과학(687만5000원) ▲인문사회(600만3000원) 순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며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장은 “최근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대학 자율화와 역행하는 조치로,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장은 “지금 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규제 개선과 대학 자율화의 시작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 인상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글로벌대 통합 지연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교육부, 통합 추진 이행상황 점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글로벌대에선 정된 경우, 대학 통합이 지연되면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도 환수되는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벌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벌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대학의 성과관리 및 통합 추진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마련된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에 따라,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벌대학은 협약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합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합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대학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 삭감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통합 이행이 지연되거나 통합이 무산되는 글로벌대학은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해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킨텍스, 작년 매출 949억... 역대 최대 실적

전시장 임대 수요 창출 등 수익성 강화

킨텍스는 12일 2024년 연간 재무 성과를 집계한 결과 총 매출 949억 원, 당기순이익 216억 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매출이 약 23%, 당기순이익이 31% 증가한 수치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매출 873억 원, 순이익 160억 원)을 뛰어넘는 성과다. 이 같은 실적 성장의 배경에는 이재울 대표이사의 강력한 경영 혁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조직 혁신을 통한 흑자경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6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재무 성과를 실현하며 킨텍스의 퀀텀 점프를 이끌었다. 특히, ‘수익 극대화·지출 효율화’를 기조로 한 경영 원칙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킨텍스는 OTT 콘텐츠 촬영 등으로 전시장 임대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 신규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런칭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대해왔다.

한편, 킨텍스는 올해 주요 인프라 사업들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제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내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TOP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일반학교와 지원격차 해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일반학교와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이번 보조금 개편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기존에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 수, 학생 수, 건물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된다.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95.75점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선 2023년 평가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분야에서 14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보통’(다 등급)에서 최우수(가 등급)로 2 단계 상승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4 | 해질 / 18:09

2월 13일 (목) 음력 : 1월 16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8/5, 동두천 -8/5, 가평 -8/4, 파주 -10/4, 서울 -5/5, 양평 -7/5, 수원 -3/5, 용인 -3/5, 평택 -7/5,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쇼트트랙 대표팀, 하얼빈 동계AG 귀국 하루 만에 밀라노로
▲피겨 김채연, 첫 동계AG 무대에서 쇼트 개인 최고 점 '71.88점' /사진 뉴시스

▲커쇼, 다저스와 1년 연장 합의... '원클럽맨' 이 어간다
▲제59회 슈퍼볼, 미국 내 평균 시청자 1억2770만명...역대 최다 기록

▲레알마드리드, UCL 16강 PO 1차전서 맨시티에 3-2 역전승
▲'K리그1 챔피언' 울산, 시즌 대장정 돌입...부리람과 ACLE서 격돌



진정한 AI 폰
Galaxy S25 | S25+
 Galaxy AI ✨

최신 폰 사는. 최선의 방법.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월 5,900원으로 **Galaxy S25 Series**를 반값에, 파손 보장까지!

1년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가 보장되는 조건이며, 2년 후 반납 시 최대 40%까지 보장됩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기간에 삼성닷컴을 통해 자급제 갤럭시 S25 시리즈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삼성 개인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가입신청서 작성 후 차월부터 자동 결제됩니다. 외관 파손, 전원 작동 불가, 계정 미삭제 제품 제외 모두 반납 대상입니다.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갤럭시 S25, 갤럭시 S25+이며,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UI/UX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